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기업분석 | 2026.10.13

KOSPI | 소재

조일알미늄 (018470)

배당 재가와 자사주 소각 등 TSR 제고로 디스카운트 축소 기대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이행상황

- 당사는 2026년 7월 27일 자율공시를 통해 기업가치제고 계획 발표. 당사는 현황진단을 통해 주가 디스카운트의 배경으로 LME 가격 변동에 따른 구조적 ROE 변동성, TSR 지표의 완전한不在, 현금 흐름 및 부채 가중 리스크, R&D 투자 매몰과 기술 전환 지연 우려 등 제시
- 밸류업 목표 설정: 2027년 내 1)PBR 0.7~0.8배, 2)ROE 8~10%, 3)TSR(총주주환원율)은 현금 배당 개시 & 환원율 10% 목표, 2029년 내 1)PBR 1.0배 이상, 2)ROE 10~12%, 3)TSR 15% 이상 목표
- 매크로 및 거시경제에 따른 가격 변동성으로 중장기 외형 성장 목표가 부재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나, 비철금속 가공업 특성상 불확실한 매출 목표보다 수익성 개선과 현금배당 및 자사주 매입/소각을 통한 자본효율성 제고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으로 판단. 100억 원 규모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체결, 1년 내 자사주 소각으로 배당 개시와 더불어 2027년 TSR 목표 초과 달성이 예상된다는 점에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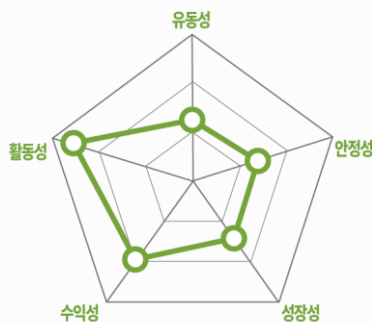
체크포인트

- 투자포인트: 1)2차전지 양극박 수요 성장의 핵심 수혜주, 2)기업가치제고 계획을 통해 주주환원 공식화, 3)주주환원 효과를 극대화하는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실시
- LME 알루미늄 가격과 우호적 환율 효과로 상반기에는 외형 증가 및 수익성 호조를 기록했으나, 2분기를 정점으로 메탈가격이 약세를 보여 하반기에는 외형 축소 및 수익성 부진이 불가피할 전망. 연간 매출액 5,522억 원(YoY +13.5%), 영업이익 234억 원(YoY +69.9%) 전망

주가 및 주요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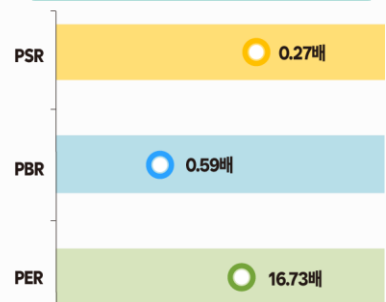


재무지표



주: 2025년 기준, Fnguide WICS 분류 상 소재산업 내 등급화

밸류에이션 지표



주: PSR, PER은 2025년 기준, PBR은 2Q26 기준, Fnguide WICS 분류상 소재산업 내 순위 비교, 우측으로 갈수록 저평가

2차전지 양극박 수요 성장의 핵심 수혜주

EV와 ESS 시장의 구조적 성장으로 2차전지 양극박 부문 수혜 장기화 예상, 양극박 소재 부문 최대 고객사는 롯데인프라셀로 롯데인프라셀 向 매출액은 2022년 828억 원에서 2025년 1,291억 원으로 3개년간 연평균 16.0% 증가한 데 이어 2026년 상반기에만 845억 원으로 전년동기 (647억 원)대비 30.7% 급증. 롯데인프라셀의 양극박 생산능력은 안산공장 1.2만 톤, 헝가리 1공장 1.8만 톤(2021년 준공), 미국 켄터키 3.6만 톤(2025년 준공)까지 현재 6.6만 톤을 확보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헝가리 2단계 증설투자(1.8만 톤)가 완료되면 총 8.4만 톤으로 확대

기업가치제고 계획을 통해 주주환원 공식화

2027년 내 1)PBR 0.7~0.8배, 2)ROE 8~10%, 3)TSR(총주주환원율)은 현금 배당 개시 & 환원율 10% 목표, 2029년 내 1)PBR 1.0배 이상, 2)ROE 10~12%, 3)TSR 15% 이상 목표. 매크로 및 거시경제에 따른 LME 가격 변동성으로 중장기 외형 성장 목표가 부재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나, 비철금속 가공업 특성상 불확실한 매출 목표보다 수익성 개선과 현금배당 및 자사주 매입/소각을 통한 자본효율성 제고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으로 판단

주주환원 효과를 극대화하는 자사주 매입 및 소각

100억 원 규모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체결, 1년 내 자사주 소각으로 배당 개시와 더불어 2027년 TSR 목표 초과 달성 예상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억원)	5,624	4,658	4,984	4,867	5,522
YoY(%)	20.4	-17.2	7.0	-2.3	13.5
영업이익(억원)	158	85	201	138	234
OP 마진(%)	2.8	1.8	4.0	2.8	4.2
지배주주순이익(억원)	178	-1	110	80	169
EPS(원)	712	-5	434	315	669
YoY(%)	-6.8	적전	흑전	-27.4	112.4
PER(배)	16.5	N/A	16.1	20.7	7.9
PSR(배)	0.5	0.6	0.4	0.3	0.2
EV/EBITDA(배)	19.7	25.9	11.7	13.6	9.6
PBR(배)	1.6	1.4	0.9	0.8	0.6
ROE(%)	10.1	-0.1	5.6	3.9	7.8
배당수익률(%)	0.0	0.0	0.0	0.0	2.7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주가 (10/8)	5,270원
52주 최고가	9,755원
52주 최저가	4,430원
KOSPI (10/8)	6,625.93p
자본금	633억원
시가총액	1,335억원
액면가	500원
발행주식수	127백만주
일평균 거래량 (60일)	53만주
일평균 거래액 (60일)	7억원
외국인지분율	0.00%
주요주주	(주)조광 23.92%
	이영호 18.06%

Price & Relative Performance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8.3	-28.4	-21.8
상대주가	13.7	-36.5	-58.1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이자보상배율', 성장성 지표는 '매출액 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ROE', 활동성지표는 '총자산회전율', 유동성지표는 '유동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기업 밸류업 공식 법안 주주가치 존중 기업문화로의 변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하는 기업.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며 투자자와 소통하는 기업



기업 개요

1 회사 연혁

**52년 업력의 국내 2위 알루미늄
압연업체로 2차전지 양극박
소재로 신성장동력 확보**

조일알미늄은 1974년 11월 '조일알미늄공업사'로 설립되어 1985년 7월 법인으로 전환하며 사명을 '㈜조일알미늄공업'으로 변경하였다. 이후 1988년 11월 기업공개를 실시했고, 2006년 3월 현재의 사명인 '조일알미늄'으로 변경했다. 그리고 2009년 4월 이재섭 전 회장의 지분 증여로 최대주주가 이영호 현 대표이사로 변경되었다.

생산 설비는 연속주조와 냉간압연을 중심으로 갖춰오다 2010년대 열간압연 라인까지 확보했다. 1986년 폭 1,900mm 4H 냉간압연기 시운전을 마쳤고, 프랑스 PECHINEY사의 3C JUMBO CASTER(용탕을 두 냉각 롤 사이로 흘려 판재를 바로 뽑아내는 연속주조기)를 도입해 1988년 3월 3공장에서 생산을 개시했다. 이후 1998년 주조기 5기와 냉간압연기를 갖춘 진량공장 설비를 완료했으며, 2004년 12월 대구공장의 생산시설을 진량공장으로 모두 이전했다. 2016년 10월에는 이탈리아 미노(Mino S.p.A.)사의 열간압연기를 들여와 열연공장을 준공했고, 2018년 12월 같은 회사의 신규 냉간압연기 도입을 완료했다. 이로써 슬래브(Slab)를 열간압연한 뒤 냉간압연으로 이어가는 공정까지 갖추게 되었다. 이후에도 2021년 150억 원 규모의 열간압연설비 등 설비 증설을 결정했고, 2024년 10월 60톤 소둔로 설치를 완료하는 등 증설을 지속해 왔다.

2020년대 들어서는 2차전지 소재로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2021년 8월 롯데알미늄(現 롯데인프라셀)과 2차전지용 양극박 원재료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2022년 1월 공급계약에 이어 같은 해 12월 장기공급계약으로 확대했다. 같은 달 동원시스템즈와도 양극박 소재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연혁

1974~2000	2001~2020	2021~
1974.11 조일알미늄공업사 설립 1985.07 법인으로 전환 → 조일알미늄공업(주) 1985.12 폭 1,900mm 4H 냉간압연기 입하 1986.03 3C JUMBO CASTER 3기 구매계약 (프랑스 PECHINEY) 1986.12 4H 냉간압연기 (폭 1,900mm) 시운전 완료 1987.01 3공장 건물 및 기계공사 착공 1988.10 3C JUMBO CASTER 1기 및 용해로 2기 기계공사 착공 1988.11 기업 공개 1995.02 진량공장 냉간압연기 1기 구매계약 1995.03 진량공장 증설 착공 1997.12 진량공장 압연기 및 재단 LINE 시운전 개시 1998.03 진량공장 설비 완료	2002.10 진량공장 3호 재단기 설치 완료 2004.12 생산시설 이전 완료 (대구공장 → 진량공장) 2005.10 기술연구소 준공 2008.10 일본 Furukawa-Sky Aluminum Corp.와 업무제휴 2009.04 자동차 열교환기의 판용 알루미늄 합금 특허 취득 2012.01 (주)한국클래드텍과 알루미늄 클래드재 개발을 위한 MOU 체결 2013.07 이탈리아 미노(Mino S.p.A.)사와 열간압연기 도입계약 체결 2016.01 신규 열간압연기 시제품 생산 2016.10 열연공장 준공 2017.02 이탈리아 미노(Mino S.p.A.)사와 냉간압연기 도입계약 체결 2018.12 신규 냉간압연기 도입 완료	2021.07 열간압연설비 등 시설증설 (150억원) 2021.08 롯데알미늄과 2차전지용 양극박의 원재료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2.01 롯데알미늄과 2차전지용 양극박 소재 공급계약 체결 2022.10 5호 Rewinder 설치 완료 2022.12 2호 가열로 설치 완료 2022.12 롯데알미늄과 2차전지 양극박 및 일반소재용 STRIP 장기공급계약 체결 2022.12 동원시스템즈와 2차전지 양극박 소재공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4.10 60톤 소둔로 설치 완료 2026.07 기업가치 재고계획 발표 2026.07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발표

자료: 조일알미늄,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회사 개요

알미늄 산업은 가공 방법에 따라 압연, 압출, 주조 등으로 구분된다. 그 중에서 조일알미늄은 압연 단일 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산업용 소재와 기물용 소재를 생산한다. 압연은 금속을 회전하는 두 개 이상의 원통 사이로 넣어서 재료의 두께를 줄이고, 균일하게 만들어 활용하는 방식이다.

1) 품목 구성

1H26 기준

국내 77.5%, 수출 22.5%이나,
수출 중에서도 국내 고객사를 통한
Local 수출이 대부분으로 실제
해외시장 직접 수출은 미미한 수준

매출 비중의 99.9%가 Foil재, 2차전지 양극박재, 건축 내외장재에 해당하는 산업용 소재이며, 알미늄판 임가공의 기물용 소재 등도 0.1%의 비중으로 일부 생산하고 있다. 알미늄판 임가공의 전체 매출액이 내수에서 발생하는 것과 다르게, 1H26 기준 알미늄판 산업용 소재는 내수 77.5%, 해외 22.5%의 비중을 기록했으나, 수출의 대부분이 국내 고객사를 통한 Local 수출로 실제 해외시장 직접 수출은 미미한 수준이다.

주요 고객사로 국내 Foil 제조사인 롯데인프라셀(롯데알미늄에서 분할)과 동원시스템즈 등을 두고 있으며, 1H26 기준 Foil 제조사향 매출 비중이 44%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2) 생산 시설

압연기는 크게 열간압연기(Hot Rolling Mill)와 냉간압연기(Cold Rolling Mill)로 나뉜다. 두 설비 모두 소재를 롤 사이에 통과시켜 얇게 편다는 점은 같으나, 온도와 공정상의 단계에서 차이가 있다. 열간압연기는 두꺼운 슬래브를 약 400~500°C로 가열한 뒤 압연한다. 금속이 물러진 상태라 한 번에 많이 눌러 얇게 만들 수 있지만 두께 정밀도는 떨어진다. 반면 냉간압연기는 열간압연 코일이나 연속주조 코일을 상온에서 한 번 더 압연한다. 낮은 온도로 인해 두께를 많이 줄이지는 못하지만, 두께를 정밀하게 맞출 수 있고 표면이 매끈해진다. 당사는 2016년 증설을 통해 열간압연기를 확보하면서 현재 냉간압연기 5대, 열간압연기 1대를 보유하고 있다.

3) 생산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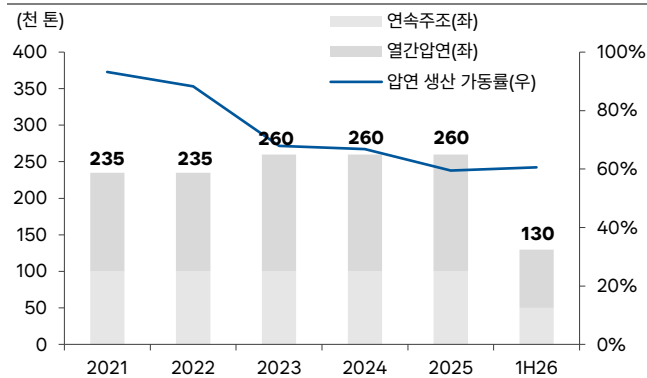
조일알미늄은 연속주조 방식(CC, Continuous Casting)과 DC 주조 방식(DC, Direct Chill)을 모두 활용하고 있다. 기존에는 용탕을 두 개의 수냉 롤 사이로 흘려 굳히면서 동시에 눌러, 수 mm 두께의 판을 바로 뽑아내는 연속주조 방식으로 생산해왔다. 이 경우 열간압연 없이 바로 냉간압연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후 2016년 열간압연기를 도입하면서, 슬래브를 주조한 뒤 열간압연과 냉간압연을 차례로 거치는 DC 방식까지 갖추게 되었다. 현재 전체 생산에서 CC가 DC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H26 기준 전체 가동률은 60.6%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D.C. Line vs C.C. Line 공정 흐름 비교

구분	용해-주조		주괴 전처리		압연		열처리·세척		마무리		
D.C. Line	원료 용해	주조	면삭	균질화 처리	열간 압연	냉간 압연	소둔	—	교정	재단	포장
C.C. Line	원료 용해	주조	—	—	—	냉간 압연	소둔/균질화	세척	교정	재단	포장

자료: 조일알미늄,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생산능력 및 가동률 추이



자료: 조일알미늄,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조일알미늄 진량 공장



자료: 조일알미늄,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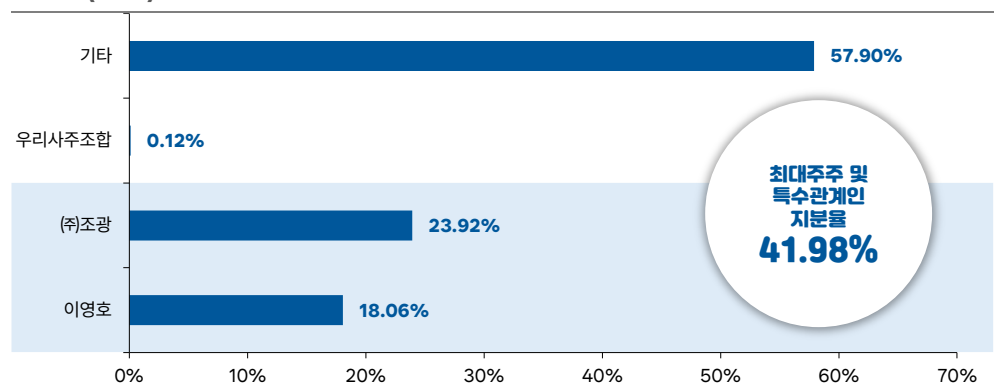
3 주주 현황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41.98%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 비중은 2Q26 말 기준 41.98%이다. 1대 주주인 (주)조광이 23.92%, 2대 주주인 대표이사 이영호가 18.06%를 보유하고 있다. 이영호 대표는 미국 뉴욕대 경영학, 미국 뉴욕 FORDHAM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후 1985년 7월 법인 전환 이후부터 재직 중에 있다. 친부인 이재섭 조일알미늄 전 대표로부터 2009년 지분을 증여 받았으며, 동시에 사장에서 대표이사로 보직 변경되었다. 국내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는 (주)조광은 지주 성격의 법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영호 대표가 (주)조광의 이사를 상근으로 겸직하고 있다.

우리사주조합이 0.1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일알미늄은 2026년 7월 27일,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와 함께 6개월 동안 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자사주를 매 영업일마다 일정량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10월 8일 장 마감 기준 약 116만 주(약 18.4억 원)를 취득하면서 자사주 비율은 약 4.58%로 증가했다.

주주 현황(2Q26)



자료: 조일알미늄,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산업 현황

1 국내 알루미늄 판재 시장은 3사 과점 구조

국내 알루 판재시장은 3사 과점:

노벨리스코리아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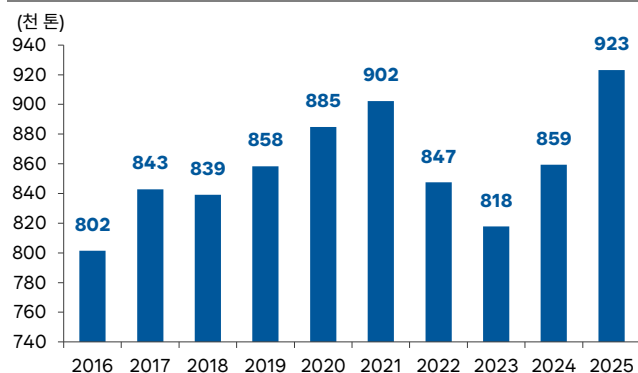
조일알미늄 10%,

대호에이엘 4% M/S 차지

국내 알루미늄 판재(압연재) 시장은 2018년 공급자 구조조정을 거친 이후 과점적 수급 체계가 공고화되었으며, 2025년 기준 연간 총 판매량은 전년 대비 7.4% 증가한 92.3만 톤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하였다. 과거 국내 알루미늄 판재 시장은 노벨리스코리아, 조일알미늄, 대호에이엘, 대창AT 등 4사 경쟁구도로 유지되었으나, 대창스틸 계열의 대창AT가 만성적인 적자누적으로 인해 2018년 10월 알루미늄 사업 영업정지 및 휴면공장 매각을 단행하면서 공급선이 현재의 3개사(노벨리스코리아, 조일알미늄, 대호에이엘) 체제로 재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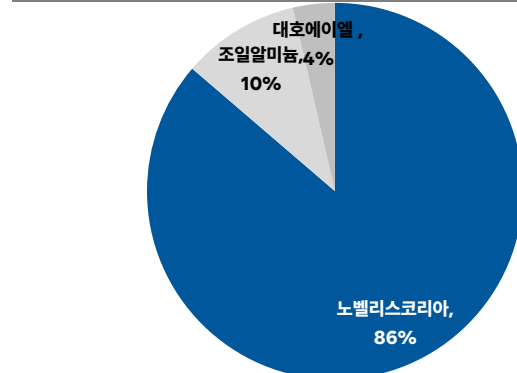
2025년 시장점유율을 보면, 글로벌 기업인 노벨리스코리아가 전년 대비 10.2% 증가한 79.7만 톤을 출하하여 국내시장 86%의 독점적 점유율을 차지하였다. 반면, 국내 2위업체인 조일알미늄은 2021년 12.3만 톤(점유율 14%)을 정점으로 연간 판매량이 4개년 연속 감소해 2025년 9.4만 톤으로 줄었으며, 시장점유율 또한 10%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3위업체인 대호에이엘은 연간 3만 톤 초중반대의 판매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4% 내외의 점유율을 고수하고 있다.

국내 알루미늄 판재 판매량 추이



자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알루미늄 판재 시장점유율(2025)



자료: 업체별 판재자료 취합,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1H26 3개사 합산 판매량은

52.4만 톤으로 YoY 13.7% 증가,

내수 정체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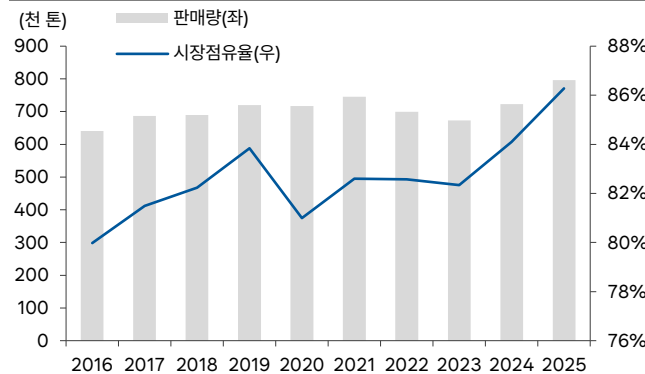
증가세 견인

2026년 상반기 국내 알루미늄 압연 3사의 합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3.7% 증가한 52.4만 톤으로 집계되었다. 2026년 상반기 3사의 내수 합산 판매량은 15.4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에 그쳐 정체 국면을 지속한 반면, 수출 합산 판매량은 36.9만 톤으로 19.4% 급증하였다. 전체 수출 증가분(6.0만 톤)의 97%에 달하는 5.8만 톤을 노벨리스코리아가 주도하면서 상반기 누적 출하량은 45.9만 톤(전년 동기 대비 16.0% 증가)을 기록하였다. 노벨리스코리아의 2025년 매출액은 4조 3,6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2% 증가하였으며, 연간 수출액은 3조 4,230억 원(달러 기준 21억 달러 이상)에 달해 수출 비중이 78%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조일알미늄은 2026년 상반기 누적 판매량이 4.7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역성장하였다. 상반기 수출량은 전년 동기 171톤에서 1,345톤으로 686.5% 급증하였으나 절대 규모가 작아 전체적인 판매량 감소를 방어하지 못하였다. 조일알미늄의 출하 둔화는 판매 구조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내수 부진에 기인한다. 상반기 내수 판매량은 4.5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감소하였는데, 이는 장기화된 국내 부동산 및 건설 경기 침체로 건축용 외장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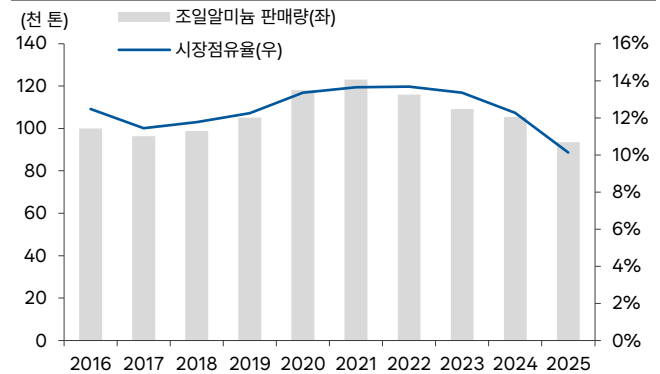
수요가 급감하고 가계 소비 둔화로 일반 연포장용 알루미늄 호일(Foil) 수요가 동반 위축된 탓이다. 2차전지 양극박용 소재 출하가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범용 제품의 판매 감소폭을 전량 상쇄하기에는 부족했다.

노벨리스코리아 판매량 & 시장점유율 추이



자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조일알미늄 판매량 & 시장점유율 추이



자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알루미늄 판재 수출 시장은 북미向이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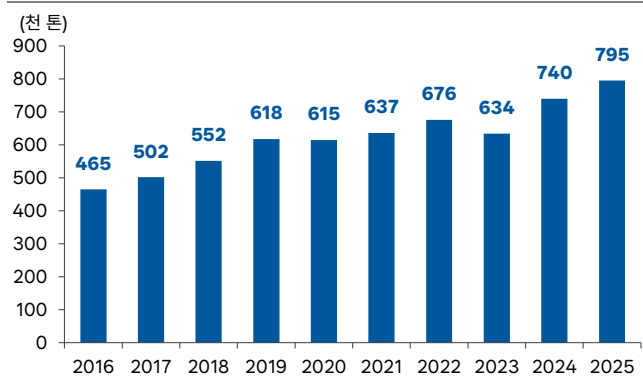
**대미 수출이 전체 수출시장 견인,
북미 수출비중은 2021년 6.2%에서
2026년 들어 40%대로 상승**

국내 알루미늄 판재는 무역수지 흑자 구조를 나타내고 있으며, 최근 통계에서 확인되는 가장 뚜렷한 거시적 변화는 對美 수출의 폭발적인 증가이다. 2025년 알루미늄 판재 총수출량은 전년 대비 7.5% 증가한 79.5만 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며, 수입량은 16.0% 감소한 29.4만 톤에 그쳐 국내 판재 산업의 순수출 기조가 한층 공고해졌다.

특히 미국向 수출 실적의 성장은 구조적으로 보인다. 對美 수출량은 2021년 3.9만 톤으로 전체 수출의 6.2%에 불과하였으나, 2022년 10.6만 톤(비중 15.7%), 2024년 18.7만 톤(비중 25.3%), 2025년 24.2만 톤(비중 30.5%)으로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올해 들어서는 2026년 8월 누적 기준 對美 수출량은 이미 전년 연간 수준을 상회한 24.7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7% 급증하였으며, 전체 알루미늄 판재 수출 중 對美 비중은 42.7%에 도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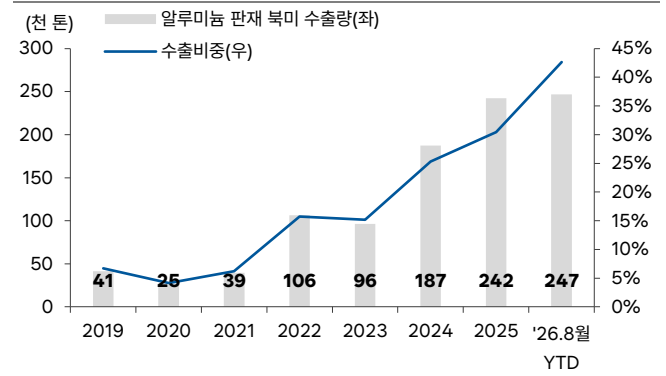
이와 같은 대미 수출 급증세의 이면에는 복합적인 공급망 변수가 자리 잡고 있다. 우선 노벨리스 미국 뉴욕주 오스위고(Oswego) 압연 공장의 설비 화재로 인해 발생한 극심한 공급 차질을 해소하고자 노벨리스 글로벌 본사가 한국 영주 및 울산 공장의 가동률을 극대화하여 북미 완성차 및 캔 메이커로 긴급 대체 공급을 단행한 영향이 컸다. 아울러 미·중 무역 분쟁 심화에 따른 미국의 대중국 고율 관세 부과와 규제 강화로 인해 미국 내 중국산 판재 유입이 통제되면서 기술력과 납기 신뢰성을 구비한 한국산 제품이 핵심 대체재로 부상하였다. 이에 더해 북미 음료 캔 시장의 탈플라스틱 친환경 패키징 전환 가속화가 합금 판재 수요를 구조적으로 견인하였다.

알루미늄 판재 수출량 추이



자료: 관세청,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알루미늄 판재 對美 수출량 추이



자료: 관세청,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2차전지 양극박은 알루미늄 판재의 핵심 수요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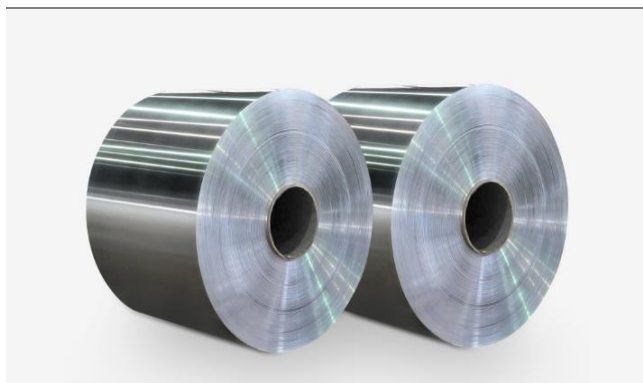
EV 및 ESS 수요 증가로 알루미늄 양극박 수요는 향후 5년간 두자리대 성장을 전망

전기차(EV) 보급 확대와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의 구조적 성장에 따라 배터리 핵심 소재로서 알루미늄박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알루미늄박은 양극 활물질을 지지하는 지지체이자 전자의 이동을 돕는 집전체로 기능하며, 셀의 출력 밀도와 충·방전 효율, 내구성을 좌우하는 핵심 소재이다. 배터리 4대 소재에 비해 원가 비중은 2% 내외로 낮은 편이나, 초박막화 및 고전압 환경에서의 인장 강도와 내식성이 필수적이므로 진입 장벽이 높은 정밀 가공 분야이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알루미늄 양극박 수요는 2020년 9.2만 톤에서 2023년 21.5만 톤, 2025년에는 47.5만 톤까지 연평균(CAGR) 38.9%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2030년까지 약 80~100만 톤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전망치에 따르면 향후 5개년 CAGR은 최저 11.0%에서 최고 16.1%에 달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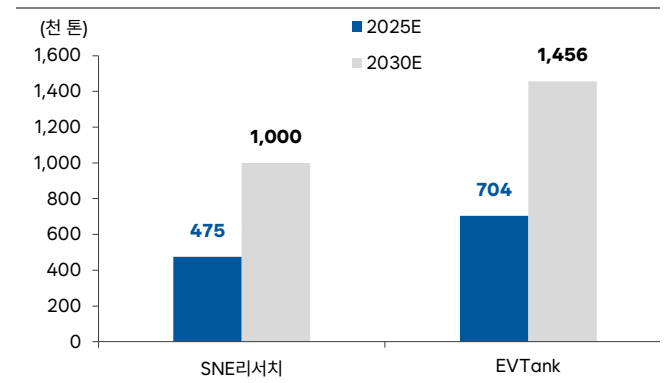
중국의 전방기관인 EVTank(이웨이경제연구원)는 배터리 소재산업에서 구체적인 출하량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2025년 2차전지 알루미늄 양극박 수요를 약 70.4만 톤으로 추정하고, 2030년 수요 전망치를 연평균 15.6% 성장하는 약 145.6만 톤으로 SNE리서치의 전망 보다 공격적이다. 이는 2026년 4월 기준 전망치로 LFP 배터리와 나트륨이온 배터리 시장의 확대를 반영하여 최신 수요시장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2차전지 양극박용 알루미늄 코일



자료: 조일알루미늄,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글로벌 2차전지 양극박 수요 전망



자료: SNE리서치, EVTank,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2차전지 폼팩터 변화와 배터리 사양 고도화로 양극박 시장도 고부가 하이엔드 제품 위주로 믹스 개선 가속화

수요 측면의 구조적 드라이버는 폼팩터 다변화와 배터리 사양 고도화로 요약된다. 중저가 전기차 및 ESS를 중심으로 채택이 확대되고 있는 LFP(리튬인산철) 및 각형 배터리는 셀당 전극 면적이 넓어 단위 용량당 양극박 소요량이 상대적으로 크다. 아울러 46시리즈를 필두로 한 대규격 원통형 배터리의 채택 확대는 고속 와인딩 공정 시 단락을 방지할 수 있는 고인장강도 특성을 요구하고 있다. 에너지 밀도 극대화를 위해 집전체 두께가 기존 15~20 μ m에서 10~12 μ m 수준의 극박(Ultra-thin) 형태로 진화함에 따라, 단순 물량 증가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하이엔드 제품 위주로 믹스 개선이 가속화되는 추세이다. 양극박 제조 공정은 균일한 두께 제어와 표면 결함 최소화, 장력 제어 등 정밀 압연 기술이 필수적이어서 신규 진입자에 대한 기술적 장벽이 높다. 현재 글로벌 공급망은 대규모 생산능력을 갖춘 중국계 로컬 압연사와 품질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 4개사, 그리고 일부 일본계 업체 중심의 과점 구도가 형성되어 있다.

국내 양극박 산업의 공급망은 원소재 압연업체(노벨리스코리아, 조일알미늄 등)가 알루미늄 잉곳(Ingot)을 열간냉간 압연하여 수백 마이크로미터 두께의 스트립(Strip) 코일로 가공한 후, 이를 박 메이커(롯데인프라셀, 동원시스템즈, 삼아알미늄, DI동일 등)가 공급받아 10~15 μ m 이하로 초정밀 극박 압연하는 체계로 분업화되어 있다. 박 가공 공정의 핵심은 슬리팅(Slitting, 재단) 및 압연 시 핀홀(Pinhole) 발생을 억제하고 파단을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기초 원소재인 알루미늄 스트립의 성분 균일성과 표면 품질이 완성품의 수율을 결정짓는다. 이에 따라 고품질 원소재를 안정적으로 대량 공급할 수 있는 노벨리스코리아와 조일알미늄 등 국내 업스트림 압연기업들의 중장기 수혜가 예상된다.

동사의 최대 고객인 롯데인프라셀의 양극박 생산능력은 현재 3만 톤에서 헝가리 2단계 증설 및 미국 켄터키 JV공장 신설로 8.4만 톤으로 증가

국내 2차전지용 양극박 기업들은 선제적인 해외 현지 투자와 주요 완성차·셀 메이커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나서고 있다. 특히, 조일알미늄의 2차전지 양극박 분야 최대 고객사인 롯데인프라셀(롯데알미늄에서 분할)은 국내 양극박 4개사 중 가장 공격적인 글로벌 현지화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롯데인프라셀은 국내 안산공장에 연산 1.2만 톤 생산능력을 보유한데 이어, 2021년부터 유럽 헝가리 터터바너 공장에 연산 1.8만 톤 규모의 1단계 라인을 가동 중이며, 향후 헝가리에 2단계 공장 증설 완료 시 유럽에서만 연산 3.6만 톤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에 더해 북미(켄터키주)에서는 롯데케미칼과의 합작법인(JV)을 통해 연산 약 3.6만 톤의 공장을 2025년 준공했다. 국내, 유럽, 북미 생산능력을 다 합치면 연산 약 8.4만 톤 수준이다.

삼아알미늄은 평택 포승공장에 연산 33,600톤 생산능력 보유, 프랑스 ACC, LG엔솔 등과 9,100억 원대 장기물량 수주로 안정적인 Captive 공급망 확보

삼아알미늄은 평택 포승공장에 연산 33,600톤의 압연 생산능력을 보유한 양극박 기업으로 주요 알루미늄 원소재(AI-Strip)는 노벨리스코리아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삼아알미늄은 2022년 5월 프랑스 소재 배터리기업인 ACC와 2030년 12월말까지 총 9년간 약 2,154억 원 규모의 2차전지 양극박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2023년 1월에는 전략적 투자자(SI)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LG에너지솔루션과 2030년말까지의 8년간 2차전지 양극박 장기공급계약(약 6,950억 원)을 체결하여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Captive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다.

DI동일은 2차전지 양극박 사업 확대를 위해 자회사 동일알루미늄 흡수합병, 청주공장에서 현재 5대 압연기 가동, 2027년 가동목표로 2차전지 전용 압연 6~8호기 투자 진행 중

DI동일은 2차전지용 알루미늄박 사업을 미래 성장축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5년 동일알루미늄과의 흡수합병을 마무리했으며, 청주공장을 중심으로 2차전지 전용 고강도 초극박 라인을 증설하고 있다. DI동일은 2026년 2월 청주공장에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용 카본 코팅 알루미늄박 생산시설 구축을 위해 1,108억 원 투자를 결정하였으며, 투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DI동일은 LFP용 카본 코팅 알루미늄박을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키워 2031년까지 판매량을 2027년 대비 10배 이상인 2만 톤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이다. DI동일은 2023년 증설한 압연 5호기까지 현재 5대의 압연기를 가동 중이며, 2027년 양산을 목표로 2026년말까지

청주 신규공장에 2차전지 전용 압연 6, 7, 8호기 투자를 진행 중이다. 투자가 완료되면 알루미늄 박 생산능력은 기존 3만 톤 내외에서 약 60% 증가할 전망이다. D동일의 2026년 상반기 알루미늄 부문 매출액은 1,521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4.5% 증가하였으며, 부문 영업이익은 35억 원으로 전년동기(58억 원) 대비로는 40.9% 감소하며 외형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은 부진했다.

동원시스템즈는 아산사업장에 연산 1.4만 톤 규모 생산능력 보유

동원시스템즈는 종합패키징 및 첨단소재전문기업으로 연포장재, 알루미늄박, 성형용기, 식품, 음료용 캔, 페트병, 유리병, 이차전지 소재를 공급한다. 동원시스템즈는 충남 아산공장에 2020년 2차전지 양극박 전용 라인을 도입한 이후, 광폭 압연기(6호기) 증설을 거치며 현재 연산 약 1.4만 톤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2025년 전사 제품별 매출비중을 보면, 2025년 전사 연결 매출액 1조 3,729억 원 중 2차전지 부문 매출액은 1,095억 원으로 매출비중은 7.98%로 높지 않으나, 회사는 2030년까지 2차전지 매출비중을 20%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동원시스템즈는 롯데인프라셀에 이어 조일알미늄의 2차전지 양극박 분야 핵심 고객사로 조일알미늄으로부터 알루미늄 코일을 공급받고 있다.

롯데인프라셀 헝가리 양극박 공장 준공(2021년)



자료: 롯데인프라셀,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롯데인프라셀 미국 캔터키 양극박 공장 준공(2025년)



자료: 롯데인프라셀,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동원시스템즈 아산사업장



자료: 동원시스템즈,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삼아알미늄 포승공장



자료: 삼아알미늄,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투자포인트

1 2차전지 양극박 수요 성장의 핵심 수혜주

**EV와 ESS 시장의 구조적 성장으로
2차전지 양극박 부문 수혜 장기화
예상**

동사는 2025년 기준 국내 알루미늄 판재 시장에서 10%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업계 2위 기업이다. 국내 알루미늄 판재 시장은 2018년 공급자 구조조정을 거친 이후 노벨리스코리아(86%), 조일알루미늄(10%), 대호에이엘(4%) 등 3개사가 과점하는 공고한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최근 전기차(EV)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의 구조적 성장과 함께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2차전지용 양극박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동사는 양극박 생산을 위한 핵심 원소재 공급 사로서 중장기적인 펀더멘털 개선과 수혜가 기대된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알루미늄 양극박 수요는 2025년 47.5만 톤 규모에서 2030년 약 80~100만 톤으로 연평균 11.0~16.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의 경제연구소인 EVTank는 2030년 145.6만 톤까지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중저가 전기차와 ESS를 중심으로 LFP(리튬인산철) 및 각형 배터리 채택이 확대되고 있으며, 46시리즈 대규격 원통형 배터리 등의 새로운 폼 팩터 도입으로 인해 단위 용량당 양극박 소요량이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배터리 에너지 밀도 극대화를 위해 양극박의 두께가 기존 15~20 μ m에서 10~12 μ m 수준으로 얇아지면서, 고속 와인딩 공정 시 단락을 방지하기 위한 고인장강도 특성이 요구되는 등 하이엔드 제품 위주로 믹스 개선이 가속화되고 있다.

양극박 제조 공정은 균일한 두께 제어와 표면 결함 최소화가 필수적인 정밀 압연 기술이 요구되어 신규 진입 장벽이 매우 높다. 국내 양극박 산업의 공급망은 조일알루미늄 및 노벨리스코리아와 같은 원소재 압연업체가 알루미늄 잉곳(Ingot)을 열간-냉간 압연하여 수백 마이크로미터 두께의 스트립(Strip) 코일 형태로 가공하면, 이를 박 메이커가 공급받아 10~15 μ m 이하의 극박으로 초정밀 압연하는 분업 구조를 띠고 있다. 박 가공 공정의 수율과 품질은 기초 원소재인 알루미늄 스트립의 성분 균일성과 표면 품질에 의해 절대적으로 좌우되기 때문에, 고품질 원소재를 안정적으로 대량 공급할 수 있는 동사의 시장 내 위상은 확고하다.

**양극박 부문 최대 고객사는
롯데인프라셀과 동원시스템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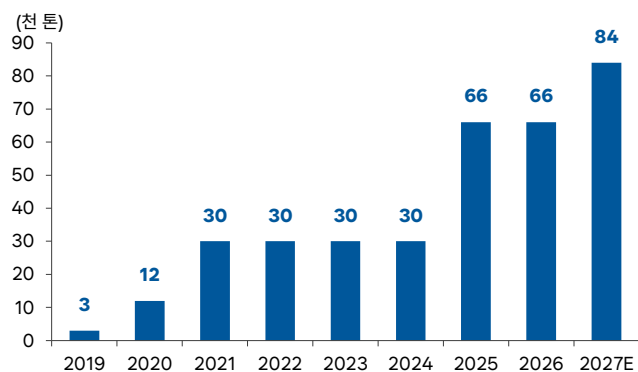
동사의 2차전지 양극박 분야 핵심 고객사는 롯데인프라셀과 동원시스템즈로 파악된다. 특히 최대 고객사인 롯데인프라셀은 가장 공격적인 글로벌 현지화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데, 현재 1.2만 톤의 국내 안산공장 생산능력에 더해 유럽 헝가리 1공장의 1.8만 톤, 미국 켄터키 합작법인의 3.6만 톤까지 6.6만 톤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2027년에는 헝가리 2공장에 1.8만 톤 증설이 완료되면 국내외 공장의 양극박 생산능력이 8.4만 톤으로 증가한다.

동사의 롯데인프라셀向 매출액을 보면 2022년 828억 원에서 2025년 1,291억 원으로 3개년간 연평균 16.0% 증가한 데 이어 2026년 상반기에만 845억 원으로 전년동기(647억 원)대비 30.7%나 급증하며 전체 매출액 대비 매출비중이 전년동기 25%에서 28%로 3%p 높아졌다. 2026년 연간 롯데인프라셀向 매출액은 1,530억 원으로 전년대비 18.5%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동사의 2대 고객사인 동원시스템즈도 2차전지 양극박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동원시스템즈는 1988년 동원참치 캔과 양반김 연포장 등을 생산하며 포장 용기 사업에 진출했으며, 이후 2012년 알루미늄 전문기업 대한은박지를 인수한 뒤 관련 가공기술을 기반으로 2차전지용 양극박 사업에도 진출하였다. 동원시스템즈는 충남 아산공장에 광폭 압연기 증설을 통해 연산 1.4만 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2차전지 부문 매출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동원시스템즈는 지난 해 46사이즈 원통형 배터리 제조기술을 확보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지난 3월 코엑스에서 개최된 인터배터리 2026에서 국내 최초로 2차전지 핵심소재인 코팅 양극박(PCAF, Primary Coated Aluminium Foil)을 공개했다. 동원시스템즈가 선보인 코팅박은 기존 알루미늄 박에 카본 소재를 코팅해 양극 활물질의 접착력을 획기적으로 높인 제품이다. LFP 배터리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양극 활물질 입자가 고르게 양극박에 붙어 있어야 하는데, 활물질 자체가 워낙 미세한 만큼 쉽게 박에서 떨어지는 고질적 문제를 코팅박 기술로 해결했다. 동원시스템즈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에 나선 코팅박은 기존 연포장재에 사용되는 라미네이팅(코팅)과 인쇄기술을 알루미늄 박(Foil)에 확대 적용한 것으로, 국내 기업 중에 유일하게 알루미늄 압연에서 코팅에 이르는 통합 설비를 구축하고 있다는 장점을 살린 것이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AI데이터센터의 ESS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ESS에 주로 채택되는 LFP 배터리 수요 증가와 함께 코팅박 수요도 동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동원시스템즈는 지난 2022년 동사와 2차전지 초고강도 양극박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공급 협약(MOU)을 체결하여 양극박의 핵심 원소재인 알루미늄 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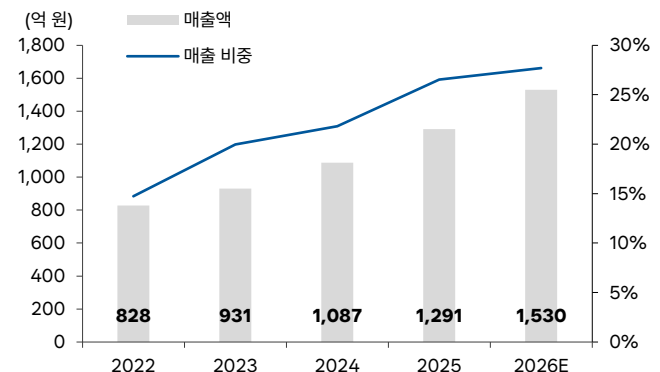
이처럼 주요 고객사들이 국내의 생산능력을 선제적이고 대규모로 확장함에 따라, 이들에게 알루미늄 코일을 공급하는 동사의 양극박 소재 출하량 역시 구조적인 동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롯데인프라셀 양극박 생산능력 추이



자료: 롯데인프라셀,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롯데인프라셀 向 매출액 및 매출 비중 추이



자료: 조일알루미늄,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기업가치제고 계획을 통해 주주환원 공식화

현재 PBR 0.6배로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 국면 인식

동사는 국내 알루미늄 압연 시장에서 약 10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과점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연간 실적 추정치 기준 PBR은 0.6배로 수준의 극심한 자산 가치 저평가 국면이다. 회사측은 기업가치제고 계획에서 이러한 가치 할인의 본질적 원인으로 LME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이익 변동성 확대와 자본효율성 저하를 지목하였으며, 실제 동사의 ROE는 2024년 5.6%에서 2025년 3.9%로 하락한 바 있다. 특히 영업을 통해 창출된 잉여현금을 주주에게 환원하지 않고 2018년 이후 全無한 無배당(TSR 0%) 기조를 고수해 온 점이 자본 시장 내 투자 매력도를 크게 훼손

2027년 단기 밸류업 목표:**1)PBR 0.7~0.8배,****2)ROE 8~10%,****3)TSR(총주주환원율) 10%**

손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사는 밸류업 계획에서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단일 수치가 아닌 유연한 밴드(Band) 형태의 중장기 목표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발표 당시 0.5배에 불과한 PBR을 2027년 0.7~0.8배, 2029년 1.0배 이상으로 회복시켜 기업가치를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자본 효율성 측면에서는 2027년 ROE 8.0~10.0%, 2029년 10.0~12.0% 구간 안착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ROE는 주가 출자한 자본의 최종 창출 효율성을 진단하는 지표로, 동사의 ROE는 2024년 5.5%에서 2025년 이익 축소 영향으로 3.8%로 하락하였다. 2026년 상반기 기준 동사의 순이익은 175억 원으로 전년동기(73억 원)대비 137.7% 급증해 상반기 기준 수치로만 보면 연 환산 ROE가 16%를 상회하는 수준이나, 실제 당리서치의 연간 추정 ROE는 7.8% 수준이다. 이는 동사가 기업가치제고 계획에서 목표한 2027년 ROE 8% 목표에 근접하는 수치이다.

올해 들어 분기별 LME 알루미늄 평균가격을 보면 1분기 \$3,199 → 2분기 \$3,571 → 3분기 \$3,226 → 4분기 현재 평균 \$3,112로 2분기 이후로는 지속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어, 사실상 올해 하반기 실적은 손익분기점 수준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으로 중동의 주요 알루미늄 설비의 공급 차질로 알루미늄 가격이 강세를 보였으나, 하반기 들어서는 2분기를 정점으로 3분기, 4분기를 지나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LME 알루미늄 가격 변동에 따른 이익 변동성은 투자자들의 주주자본비용(COE) 및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요구 수준을 높여 주가를 억누르는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하지만 올해 들어 상반기 알루미늄 가격 변동성이 컸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올해 ROE가 7.8%로 추정된다는 점은 고무적인 수치이다.

가장 고무적인 부분은 주주환원 정책의 재개이다. 동사는 잉여현금흐름 창출이 가시화되는 2026년 결산부터 현금 배당을 활성화하여 총주주환원율(TSR)을 2027년 10.0%, 2029년 15.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체적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동사는 2018년 결산배당을 마지막으로 지난 해까지 배당률 0%의 무배당 기조가 이어졌으며,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이력 역시 全無했다. 그동안은 영업을 통해 창출한 유보 자금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대신 신규 생산라인 확충 등 운전자본으로 전용해왔으며, 총주주환원율(TSR)이 0%로 정체된 점이 기업가치 할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사가 주주환원에 나섰다라는 점 자체로도 상당한 고무적인 변화라 판단된다. 특히, 동사는 정관 개정(2023년)을 통해 '先배당액 확정, 後배당기준일 지정' 규정을 도입하여 투자자들에 배당 예측 가능성을 크게 높인 점은 향후 투자심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게 한다.

**매크로 및 거시경제에 따른 가격
변동성으로 중장기 외형 성장 목표가
부재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나,
비철금속 가공업 특성상 불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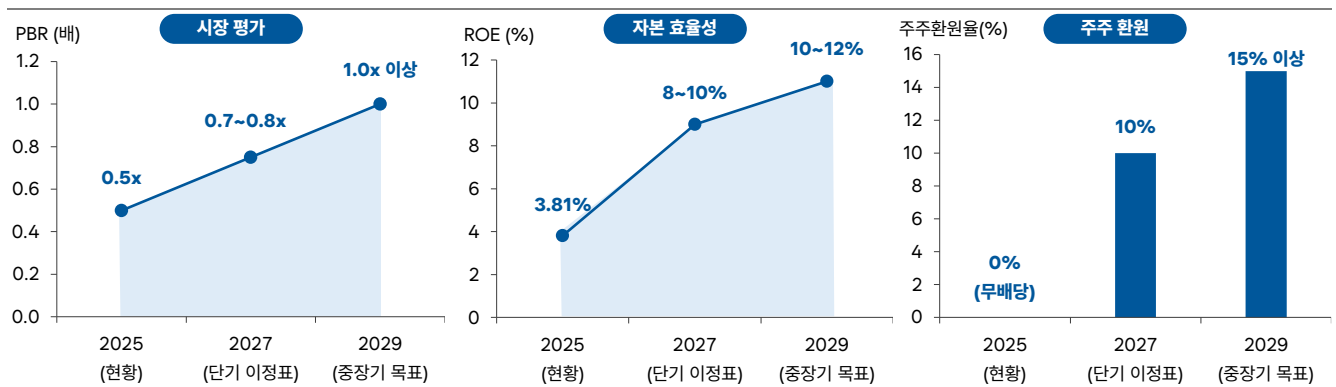
금번 기업가치제고 계획은 수익성 중심의 체질 개선과 주주환원 정책의 구조적 전환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거나, 한편으로는 중장기 외형 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不在하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는 동사가 영위하는 비철금속 압연 산업의 구조적 한계와 매출 변동의 핵심 지표인 '가격(P)'의 극심한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회사 측의 불가피하고도 현실적인 전략적 판단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알루미늄 산업은 LME(런던금속거래소) 국제 단가 변동에 실시간으로 직접 노출되어 있다. 중동 지정학적 위기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경우 제품 판매 단가 인상이 매월 적용되어 겉보기에는 단기적인 매출 외형 성장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핵심 수익원인 가공 롤 마진 스프레드가 정체된 상태에서의 명목상 매출 확대는 도리어 재무적인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고가의 원자재 수입을 위한 금융 조달 한도를 빠르게 소진시키고 현금흐름 유출을 가중시켜, 궁극적으로는 늘어난 차입금에 따른 이자 부담이 영업이익의 성장을 원천 차단하는 역설적인 수익 구조를 지니고 있

기 때문이다.

즉, 외부 거시 환경 변수에 의해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매출액을 기업가치제고 핵심 목표로 내세우는 것은 실질적인 주주가치 제고와 괴리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따라서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외형 성장 수치보다는, 회사가 스스로 통제하고 개선할 수 있는 영역인 자본 효율성(ROE) 정상화와 주주환원(TSR) 확대에 집중한 이번 기업가치제고 계획은, 비철금속 시장 특유의 펀더멘털 리스크를 오랫동안 방어해 온 회사의 불가피한 고육지책이자 현실적인 접근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업가치제고 계획 주요 목표치



자료: 조일알미늄,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3 주주환원 효과를 극대화하는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실시

100억 원 규모 자가주식 취득 신탁계약 체결, 1년 내 자사주 소각으로 배당 개시와 더불어 2027년 TSR 목표 초과 달성 예상

동사는 기업가치 제고계획 발표와 동시에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100억 원 규모의 자가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계약은 2026년 7월 27일부터 2027년 1월 27일까지 진행되며, 취득 예정 주식 수는 10,940,919주에 달한다. 지난 2월 개정된 상법에 따라 신규 취득한 자사주의 1년 내 소각이 의무화됨에 따라, 동사가 매입한 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는 늦어도 2027년 내에 소각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이는 유통주식수 및 발행주식총수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고 자본총계를 축소함으로써, 자본효율성을 크게 제고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자사주 소각은 이익 체력의 증감과 무관하게 자본 축소로 자기자본이익률(ROE) 상승 효과를 창출하여, 동사가 기업가치제고 계획에서 단기 이정표로 제시한 2027년 ROE 목표치(8.0~10.0%) 달성을 현실화하는 촉매로 작용할 전망이다.

동사가 수립한 밸류업 계획상 총주주환원율(TSR) 목표는 현금배당을 개시하는 2027년 기준 100% 수준이다. 그러나 금번 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이 2026년 7월부터 2027년 1월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실질적인 주주환원 효과는 이미 2026년부터 강력하게 발현될 것으로 분석된다. 자사주 매입액 자체가 주주환원 재원으로 산입되므로, 당장 2026년 당해 연도의 TSR만으로도 상당한 수준의 주주환원율을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

더욱이 2027년에는 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효과와 함께 2018년 이후 전무했던 현금배당의 재개가 맞물리게 된다. 자사주 매입 및 소각에 따른 대규모 환원 효과에 신규 현금 배당액이 더해진다면, 동사의 실제 주주환원율은 사측이 보수적으로 제시한 2027년 타겟(TSR 100%)을 훌쩍 뛰어넘어 중장기 목표치(150% 이상)에 선제적으로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이번 자사주 신탁계약은 단순한 일회성 주가 방어 조치가 아니라, 배당과 자사주 소각의 강력한 시너지를 통해 밸류업 목표를 초과 달성하겠다는 경영진의 확고한 실천 의지로 해석된다. 이는 향후 시장 내 투명한 주주환원 신뢰도를 높여 밸류에이션 재평가(Re-rating)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적 추이 및 전망

1 2026년 상반기 실적 분석

**1H26 매출액 3,050억 원,
영업이익 231억 원으로 好실적
달성, LME 알루미늄 가격 강세와
우호적인 환율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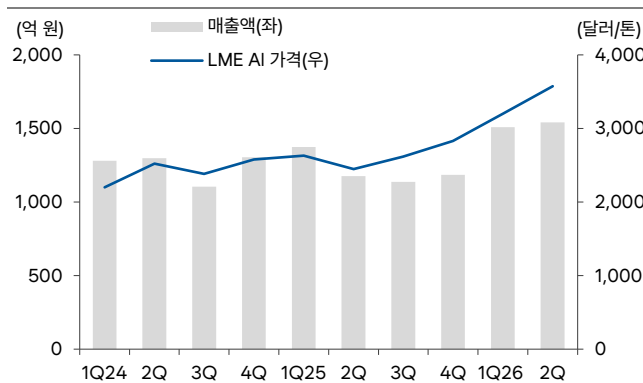
2026년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8% 증가한 3,050억 원, 영업이익은 98.5% 급증한 231억 원을 기록하며 好실적을 달성하였다. 분기별로는 1분기 영업이익 131억 원(OPM 8.7%), 2분기 100억 원(OPM 6.5%)을 달성하며 상반기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4.6%) 대비 3.0%p 개선된 7.6%로 상승하였다. 판매량을 소폭 감소했으나, 매출총이익이 전년동기대비 57.1% 확대되고 영업이익이 두 배 가까이 급증한 점은, LME 알루미늄 가격 강세와 우호적인 환율 여건에 기인한다.

2026년 상반기 LME 알루미늄 평균 가격은 톤당 3,385달러로 전년 동기(2,538달러) 대비 33.4% 급등하였으며, 특히 2분기에는 분기 평균 3,571달러까지 상승 흐름을 확대하였다. 상반기 원/달러 평균 환율 역시 전년 동기 대비 3.9% 상승한 1,484원을 기록하며 판가 상승에 기여하였다. LME와 환율 상승에 힘입어 동사의 상반기 평균 판매단가(ASP)는 톤당 646.5만 원으로 전년 동기(525.5만 원) 대비 23.0% 상승하였다.

동사의 상반기 판매량은 47,178톤으로 전년 동기(48,468톤) 대비 2.7% 소폭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차전지 양극박 등 고기능성 압연재를 납품하는 최대 고객사인 롯데인프라셀向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647억 원) 대비 30.7% 급증한 845억 원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전사 매출 내 롯데인프라셀 비중은 전년 동기 25%에서 28%로 3.0%p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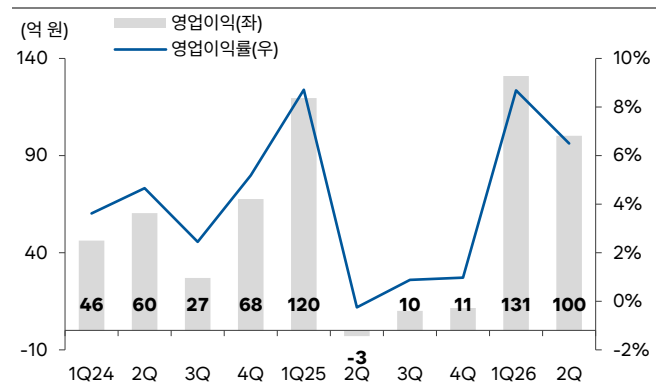
상반기 매출원가율은 90.0%로 전년 동기(92.4%) 대비 2.4%p 하락하였으며, 이에 따른 매출총이익은 30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1% 확대되었다. LME 가격 상승에 따라 원재료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매월 원가 상승분이 판가에 적시에 반영되면서 매출총이익률은 10.0%를 기록, 두 자릿수에 재진입하였다. 수익성 개선은 판관비 통제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한층 가속화되었다. 매출액이 19.8% 증가하는 외형 성장 국면에서도 판관비는 74억 원으로 전년 동기(77억 원) 대비 오히려 5.1% 감소하였으며, 판관비율은 3.0%에서 2.4%로 0.6%p 개선되었다. 고정비 부담이 완화된 상태에서 매출총이익이 확대됨에 따라 상반기 EBITDA는 전년 동기 대비 74.8% 증가한 266억 원(EBITDA 마진율 8.7%)을 달성하였고, 당기순이익 역시 175억 원(YoY +137.7%)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분기별 매출액 & LME 알루미늄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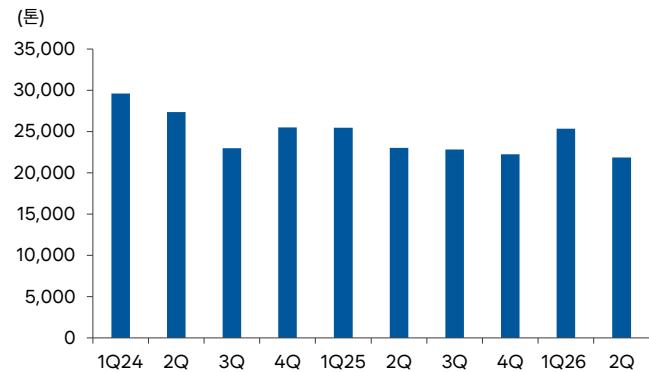
자료: 조일알미늄,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분기별 영업이익 & 영업이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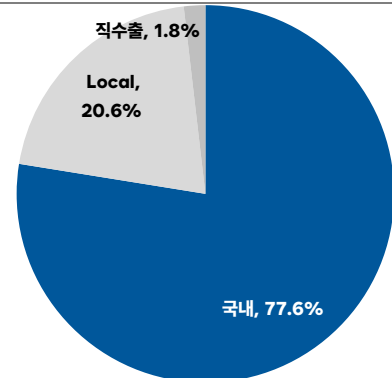
자료: 조일알미늄,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분기별 조일알루미늄 판매량 추이



자료: 업계 자료 취합,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1H26 매출 구분



자료: 조일알루미늄,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2026년 연간 전망

**2026년 연간 매출액 5,522억 원,
영업이익 234억 원,
순이익 169억 원으로
상고하저 전망,
하반기 LME 가격 및 환율 하락으로
롤마진 축소 예상**

2026년 연간 실적은 매출액 5,522억 원, 영업이익 234억 원(OPM 4.2%), EBITDA 303억 원, 당기순이익 169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 실적 호조에 힘입어 연간 전체로는 흑자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반기별 실적 흐름은 전형적인 ‘상고하저(上高下低)’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실제로 상반기 3,050억 원에 달했던 매출액은 하반기 2,472억 원으로 축소되고, 상반기 231억 원을 기록했던 영업이익은 하반기 3억 원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LME 알루미늄 가격 및 환율(FX) 조정이 롤마진 축소로 직결되는 사업 구조적 특성에 기인한다.

하반기 실적 둔화의 핵심요인은 LME 알루미늄 가격의 하락 전환과 원/달러 환율의 동반 하향 안정화다.

상반기 평균 톤당 3,385달러(1분기 3,199달러, 2분기 3,571달러)에 달했던 LME 알루미늄 가격은 3분기 3,226달러, 4분기 3,112달러로 하향 곡선을 그리며 평균 3,169달러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달러 환율 역시 상반기 평균 1,484원에서 3분기 1,418원, 4분기 1,345원으로 가파르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동사의 톤당 제품평균판매단가(ASP)는 2분기 705.2만 원을 정점으로 3분기 599.5만 원, 4분기 551.5만 원까지 하락하며 하반기 평균 ASP가 575.5만 원(상반기 대비 -11.0%)으로 위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메탈가격 상승 국면에 누렸던 판가 인상 및 재고평가 효과 등 스프레드 확대 수혜는 하반기 들어 역방향으로 작용하여 수익성에 하방 압력을 가할 전망이다.

상반기 90.0%까지 안정되었던 매출원가율은 3분기 97.3%, 4분기 96.1%로 가파르게 상승하여 하반기 평균 96.7%로 악화될 전망이다. 고가 매입 원재료 투입과 제품 판가 하락 시차가 맞물리면서 마진 스퀴즈가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반기 305억 원(GPM 10.0%)에 달했던 매출총이익은 하반기 81억 원(GPM 3.3%) 급감할 전망이다.

분기별 영업이익은 판관비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3분기 -2억 원, 4분기 5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세전이익과 순이익 또한 하반기에는 각각 -13억 원, -6억 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어 분기 실적 모멘텀 둔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반기 제품 판매량은 총 43,000톤 수준으로 예상되어 연간 판매량은 90,178톤으로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2021년

기록한 역대 최대치인 12.6만 톤에서 5년 연속 감소한 수치로 전년 대비로는 5.3% 감소하는 수치이다. 전방 고객사
向 수요는 일정 부분 유지되겠지만, 전반적인 시황 둔화와 LME 판가 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를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일
전망이다.

실적 전망

(단위: 억 원, %, 천 톤, 달러/톤)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	5,624	4,658	4,984	4,867	5,522
매출액증가율	20.4	-17.2	7.0	-2.3	13.5
영업이익	158	85	201	138	234
영업이익률	2.8	1.8	4.0	2.8	4.2
영업이익증가율	-13.4	-46.5	137.3	-31.4	69.6
순이익	178	-1	110	80	169
순이익증가율	13.7	적전	흑전	-27.4	112.4
압연 생산능력	135	160	160	160	160
생산량	119	109	107	95	92
가동률	88.1	68.1	66.9	59.4	57.5
판매량	116	109	105	94	90
LME AI 평균가격	2,703	2,250	2,419	2,630	3,277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Valuation

PBR 0.6배로 과거 평균대비

현저히 할인된 수준

현재 주가는 연초 대비 뚜렷한 반등 모멘텀을 형성하지 못한 채 절대적 저평가 영역에 머물러 있다. 2026년 연간 실적 전망치 기준 동사의 밸류에이션 멀티플은 PER 7.9배, PBR 0.6배로, 이는 과거 4개년 평균 PER(16~20배) 및 PBR(0.8~1.6배)과 비교할 때 현저히 할인된 수준이다. 2026년 순이익이 169억 원(YoY +112.4%)으로 대폭 개선되며 ROE 역시 7.8%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러한 펀더멘털 개선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양호한 연간 실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약세를 지속하고 있는 배경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실적 피크아웃(Peak-out) 및 하반기 마진 스퀴즈(롤마진 축소)에 대한 우려이다. 상반기 호실적을 견인했던 LME 알루미늄 가격 급등세가 하반기 들어 하락 전환되고, 환율 또한 하향 안정화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롤마진 축소 및 실적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이 투자심리를 제약하고 있다.

둘째, 전방 2차전지 시장의 캐즘 영향이다.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로 인해 2차전지 밸류체인 전반의 멀티플 디레이팅(De-rating)이 진행되면서, 동사의 주요 제품군인 양극박에 대한 중단기 수요 회복 속도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이 아직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비철금속 가공업 고유의 시황 연동형 디스카운트이다. 소재 가공업 특유의 낮은 마진율과 메탈가격 변동에 따른 실적 변동성이 구조적인 밸류에이션 할인 요인으로 상존해왔다.

국내 알루미늄 압연시장 경쟁사는 비상장이거나, 거래정지되어 비교 불가, 전방 2차전지 양극박업체들 대비로는 할인 거래 중

국내 시장에서 동사와 밸류에이션을 비교할 만한 동종업체로는 알루미늄 압연업체인 노벨리스코리아와 대호에이엘이 있으나, 노벨리스코리아는 국내 시장의 86% 점유율을 차지하는 과점업체지만, 비상장업체이며, 대호에이엘의 경우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혐의 발생에 따라 거래소의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가 결정되어 거래정지된 상태이므로 밸류에이션 비교가 무의미하다.

동사의 알루미늄 판재 하공정(다운스트림) 업체인 삼아알루미늄, 동원시스템즈, DI동일 등 2차전지 양극박 가공업체들의 경우 2차전지 소재 프리미엄을 부여받아 시장에서 동사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멀티플을 받고 있다. 2026년 상반기말 자본총계를 기준으로 Trailing PBR을 비교해보면 삼아알루미늄이 5.2배(ROE -10.1%)로 가장 높고, DI동일 1.1배(ROE 1.2배), 동원시스템즈 0.7배(ROE 7.0배)로 특히 삼아알루미늄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형성하고 있다. 삼아알루미늄의 이와 같은 경쟁사대비 극단적인 밸류에이션 괴리는 경쟁사들이 전통 제조업 및 비주력 사업이 섞여 있는 복합기업 할인을 받고 있는 반면, 삼아알루미늄은 시장에서 가장 확실한 2차전지 양극박 Pure Player로 리레이팅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동원시스템즈와 DI동일의 경우 2차전지 양극박 사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키우고는 있으나, 전사 실적과 자산 구조에서 2차전지 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전통사업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동원시스템즈는 연간 매출액 규모가 1조 3,700억 원 대(2025년)에 달하지만, 본업의 80% 이상이 연포장, 캔, 유리병, 알루미늄박 등 음식료 및 산업용 전통 패키징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2차전지 양극박 사업가치가 전통 저마진 포장재 밸류에이션에 희석되는 구조이다.

DI동일은 자회사 동일알루미늄을 통해 양극박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본업이 섬유(방직), 의류 유통 및 플랜트 등으로 분산된 지주사형 사업 구조로 복합기업 할인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삼아알미늄은 10 μ m 이하 초극박 고강도 알루미늄박 제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일찍이 전사 역량을 배터리 양극 집전체로 전환하였으며, 국내 배터리 3사 및 해외 셀메이커로 직납 비중이 절대적인만큼 2차전지 소재시장의 높은 멀티플이 고스란히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차전지 양극박 시장의 구조적 성장과 기업가치제고 계획 이행 및 자사주 소각 등으로 밸류에이션 할인 축소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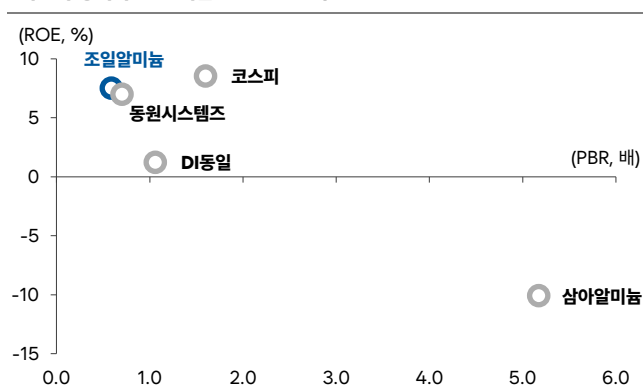
향후 동사의 밸류에이션 할인 국면은 1)2차전지 양극박 수요의 구조적 성장, 2)기업가치제고 계획 및 자사주 소각을 통한 총주주환원률(TSR) 극대화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차전지 시장은 단기 캐즘 국면을 지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중저가 전기차(EV) 중심의 배터리 채용 확대로 2차전지 양극박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특히 동사의 최대 고객사인 롯데인프라셀向 매출비중이 상반기에 28%까지 확대되는 등 양극박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동사는 최근 발표한 기업가치제고 계획을 통해 주주환원 확대를 공식화하였다. 특히, 100억 원 규모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체결 및 자사주 소각 방침, 그리고 2026년 결산배당 재개 계획은 향후 동사의 총주주환원율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릴 핵심 요인이다. 이와 같은 자사주 매입 및 소각과 현금배당에 기반한 총주주환원률(TSR) 상향은 기업가치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직접적인 트리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메탈가격 하락에 따른 하반기 실적 둔화 가능성은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선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PBR 0.6배에 불과한 현 주가수준은 하방 경직성을 제공할 전망이며, 향후 2차전지 전방 수요 정상화와 적극적인 자사주 소각, 배당 재개 등 주주가치 제고 정책이 맞물리게 되면 밸류에이션 갭은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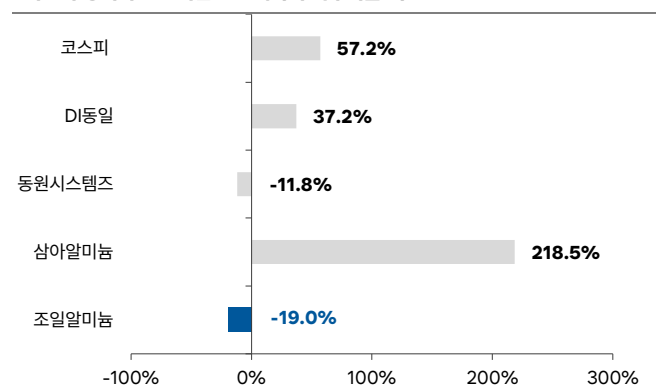
2차전지 양극박 관련 기업 ROE-PBR 비교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 2026년 상반기 말 자본총계 기준 Trailing ROE-PBR

2차전지 양극박 관련기업 연초대비 주가수익률 비교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Peer Valuation

(단위: 억 원)

기업명	시가 총액	매출			영업이익			ROE			P/E			P/B		
		2024	2025	2026E	2024	2025	2026E	2024	2025	2026E	2024	2025	2026E	2024	2025	2026E
조일알미늄	1,335	4,984	4,867	5,522	201	138	234	5.6	3.9	7.8	16.1	20.7	7.9	0.9	0.8	0.6
삼아알미늄	11,312	2,517	2,715	3,936	-96	-177	44	-3.8	-10.8	N/A	N/A	N/A	2,402.4	2.0	1.6	N/A
동원시스템즈	6,480	13,343	13,729	N/A	919	662	N/A	9.0	6.3	N/A	16.3	13.7	N/A	1.4	0.9	N/A
DI 동일	5,707	6,517	6,014	7,106	78	-15	121	0.4	-1.8	4.0	804.4	N/A	32.4	1.8	0.8	1.1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2026년 10월 8일 기준, 동종업체는 컨센서스 기준, 조일알미늄은 당사 추정치 사용)

리스크 요인

1 원자재가격 연동형 비즈니스의 구조적 실적 변동 리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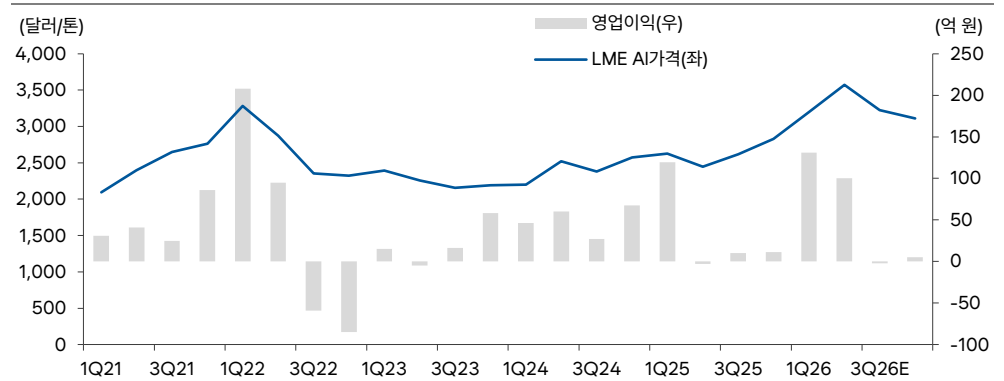
메탈가격 변동에 따른 실적 불확실성은 주가 할인 요인

동사는 환율 변동을 적용한 LME 알루미늄 가격 변동분을 제품 판매단가에 매월 연동하는 사업구조로, 메탈가격 상승 국면에서는 우호적인 롤마진(Roll Margin)과 재고평가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나, 반대로 하락 국면에서는 즉각적인 마진 위축 리스크에 직면한다.

통상 원재료 매입부터 제품 출하까지 1~2개월의 시차가 발생하는데, 하반기처럼 LME 알루미늄 하락폭이 크고, 거기에 더해 환율 하락폭까지 크게 되면 과거 고가에 매입한 원소재가 투입되는 반면 제품 판매단가는 즉각적으로 낮아져 매출원가율이 급등하는 역마진 스프레드가 불가피하다.

상반기 실적을 보면 누적 영업이익 규모가 231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이 76%에 달했지만, 하반기에는 메탈가격과 환율의 동반하락으로 마진이 위축되며 영업이익 규모가 3억 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메탈가격 변동에 따른 실적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는 점은 투자심리에 부정적이며, 주가 디스카운트의 핵심 요인이다.

LME 가격 & 영업이익 추이



자료: LM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 전방 전기차 캐즘 장기화에 따른 2차전지 양극박 수요 회복 지연

EV 수요 둔화 국면 지속

동사는 롯데인프라셀, 동원시스템즈 등 핵심 고객사로 매출을 확대하며 2차전지 양극박 소재 공급사로 체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단기 수요 정체와 완성차 OEM 업체들의 전동화 전환 속도 조절로 배터리 셀 메이커 및 양극박 가공업체들의 라인 가동률 회복이 지연될 경우, 당초 예상했던 광폭 압연재 출하량 확대가 제한될 수 있다. 업황 둔화 국면에서 셀 제조사 및 양극박 업체들의 수익성 악화가 나타나게 되면 이는 곧 업스트림 원소재 공급 업체인 동사에게도 전가되면서 롤마진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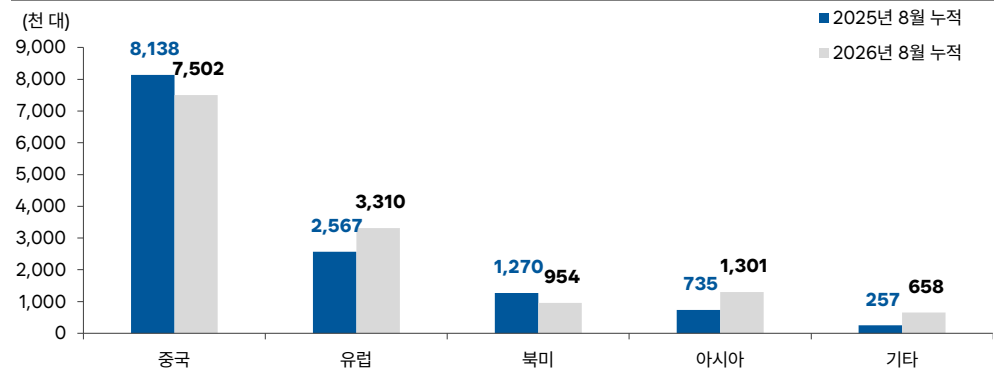
SNER리서치 통계에 따르면, 2026년 8월 누적 글로벌 전기차 인도량은 1,372.5만 대로 전년동기대비 5.9% 증가에 그쳤다. 또한 8월 한 달 인도량은 185.8만 대로 전년동월대비 1.8% 늘어나는 데 그쳐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중국은 750.2만 대로 전년동기대비 7.8%나 감소하며 시장점유율이 2025년 62.8%에서 54.7%로 하락하였다. 반면, 유럽은 동기간 331만 대로 29.0% 증가했으며,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 19.8%에서 24.1%로 4.3%p 상승하였다. 동기간 북미지역 인도량은 95.4만 대로 24.9%나 급감하여 시장점유율이 9.8%에서 7.0%로 2.8%p 하

락하였다.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지역 인도량은 130.1만 대로 전년동기대비 77.0% 급증했으며, 시장점유율은 5.7%에서 9.5%까지 3.8%p 상승하여 유럽에 이어 상승폭이 컸다.

결국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견조한 수요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BIG2인 중국과 북미 전기차 시장의 동반 침체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 수요 성장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수요 감소는 구매세 감면 축소와 가격 경쟁 심화에 따른 내수 판매 부진 영향이며, 북미지역의 경우 특히 8월의 감소폭이 40.4%로 커졌는데, 이는 세액공제 종료로 앞두고 구매가 쏠렸던 전년 8월의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이다. 미국의 전기차 신차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지난해 9월말 종료된 뒤 1년 가까이 수요 공백이 이어지면서, 일부 완성차 업체는 전기차 생산을 줄이고 배터리 공장을 ESS용으로 전환하는 등 사업계획 조정에 나섰다.

2026년 1~8월 지역별 전기차 판매



자료: SNE리서치,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	5,624	4,658	4,984	4,867	5,522
증가율(%)	20.4	-17.2	7.0	-2.3	13.5
매출원가	5,345	4,447	4,653	4,577	5,136
매출원가율(%)	95.0	95.5	93.4	94.0	93.0
매출총이익	278	211	331	290	386
매출이익률(%)	5.0	4.5	6.6	6.0	7.0
판매관리비	120	126	130	152	152
판매비율(%)	2.1	2.7	2.6	3.1	2.8
EBITDA	211	148	267	209	307
EBITDA 이익률(%)	3.7	3.2	5.4	4.3	5.6
증가율(%)	-8.7	-29.8	80.5	-21.5	46.8
영업이익	158	85	201	138	234
영업이익률(%)	2.8	1.8	4.0	2.8	4.2
증가율(%)	-13.4	-46.5	137.3	-31.4	69.6
영업외손익	-45	-100	-78	-56	-28
금융수익	8	14	24	33	31
금융비용	70	120	136	104	109
기타영업외손익	16	6	33	16	51
총속/관계기업관련손익	0	0	0	0	0
세전계속사업이익	113	-15	123	82	206
증가율(%)	-33.0	적전	흑전	-33.0	151.2
법인세비용	-65	-14	13	2	37
계속사업이익	178	-1	110	80	169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178	-1	110	80	169
당기순이익률(%)	3.2	-0.0	2.2	1.6	3.1
증가율(%)	13.7	적전	흑전	-27.4	112.4
자배주주지분 순이익	178	-1	110	80	169

현금흐름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58	-37	15	177	-343
당기순이익	178	-1	110	80	169
유형자산 상각비	52	62	65	71	73
무형자산 상각비	1	1	1	1	0
외환손익	2	1	7	4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118	-131	-226	-20	-572
기타	-57	31	58	41	-13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39	-313	-63	-25	-65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0	-250	52	-4	-2
유형자산의 감소	5	0	3	0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144	-41	-127	-24	-78
기타	0	-22	9	3	15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6	336	46	-160	450
차입금의 증가(감소)	-15	39	47	-159	485
사채의증가(감소)	0	297	0	0	0
자본의 증가	-0	0	0	0	0
배당금	0	0	0	0	-17
기타	-1	0	-1	-1	-18
기타현금흐름	-1	-0	2	-1	-5
현금의증가(감소)	-97	-14	0	-9	37
기초현금	332	235	221	221	212
기말현금	235	221	221	212	249

재무상태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유동자산	2,157	2,406	2,638	2,584	3,216
현금성자산	235	221	221	212	249
단기투자자산	3	282	211	231	235
매출채권	838	854	921	811	1,135
재고자산	1,059	1,036	1,262	1,318	1,582
기타유동자산	22	13	22	13	15
비유동자산	1,520	1,503	1,579	1,527	1,533
유형자산	886	861	956	915	921
무형자산	5	5	4	3	3
투자자산	13	17	17	14	16
기타비유동자산	616	620	602	595	593
자산총계	3,677	3,909	4,217	4,111	4,749
유동부채	1,643	1,593	2,049	1,824	2,307
단기차입금	1,302	1,377	1,468	1,295	1,780
매입채무	203	100	184	140	126
기타유동부채	138	116	397	389	401
비유동부채	165	402	172	192	212
사채	0	244	0	0	0
장기차입금	67	29	0	41	41
기타비유동부채	98	129	172	151	171
부채총계	1,808	1,995	2,220	2,015	2,519
자배주주지분	1,869	1,914	1,996	2,096	2,230
자본금	633	633	633	633	633
자본잉여금	807	878	878	878	878
자본조정 등	0	0	0	0	0
기타포괄이익누계액	0	0	0	0	0
이익잉여금	429	403	485	585	720
자본총계	1,869	1,914	1,996	2,096	2,230

주요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2026F
P/E(배)	16.5	N/A	16.1	20.7	7.9
P/B(배)	1.6	1.4	0.9	0.8	0.6
P/S(배)	0.5	0.6	0.4	0.3	0.2
EV/EBITDA(배)	19.7	25.9	11.7	13.6	9.6
배당수익률(%)	0.0	0.0	0.0	0.0	2.7
EPS(원)	712	-5	434	315	669
BPS(원)	7,380	7,557	7,882	8,275	8,566
SPS(원)	22,455	18,391	19,678	19,216	21,803
DPS(원)	0	0	0	0	70
수익성(%)					
ROE	10.1	-0.1	5.6	3.9	7.8
ROA	5.0	-0.0	2.7	1.9	3.8
ROIC	7.4	0.2	6.6	4.9	6.1
안정성(%)					
유동비율	131.3	151.0	128.7	141.7	139.4
부채비율	96.7	104.2	111.2	96.2	112.9
순차입금비율	62.6	62.0	67.3	57.0	71.9
이자보상배율	2.4	0.9	1.7	1.5	2.3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1.6	1.2	1.2	1.2	1.2
매출채권회전율	6.5	5.5	5.6	5.6	5.7
재고자산회전율	5.8	4.4	4.3	3.8	3.8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종목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조일알미늄	X	X	X

발간 History

발간일	제목
2026.10.13	조일알미늄 - 배당 재개와 자사주 소각 등 TSR 제고로 디스카운트 축소 기대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에게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양질의 투자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무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형 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항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항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https://t.me/krsofficial>)"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小中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小中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